

20만원 초과 해외직구 세금 낮아진다

관세, 부가세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과세운임표' 인하

병행수입 활성화 위해

관련 물품 AS 지정점도 확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물건값이 싸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에선 내국인 상대 할인 행사가 확대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오는 2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과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택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이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되는데,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일본에서 3kg짜리 물건을 구입하는 데 2만4천500원, 미국에서 10kg를 들여오는 데 9만3천원의 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소매판매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의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택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이다. 세관 물류창구 모습. <경주일보 자료사진>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소매 면세를 해주는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로 올리고 목록통관 기준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로 맞추는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핸드백, 모자, 소형가전제품 등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교적 낮은 가격이 장점이지만 애프터서비스(AS)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행수입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병행수입 물품의 AS 지정점이 늘어난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 지원 전문업체로 현재 17곳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물로보나...수입 탄산수 값, 생산국의 '최대 7.9배'

이탈리아산 '산펠레그리노'

체코산 '마토니그래드' 등

국내 소비자에 '바가지 요금'

탄산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원산지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난 5~6월 국내 및 수입탄산수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국내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탄산수 10종 중 원산지와 국내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이탈리아산 '산펠레그리노'였다. 이 제품의 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100ml당 738원으로 이탈리아 현지가격인 93원의 7.9배가 넘었다.

체코산 '마토니그래드'도 현지가격 184원, 국내가격 1060원으로 가격차이가 5.8배였다. 이어 '산베네디토'(이탈리아·4.3배), '페라지'(폴란드·3.5배), '페리에'(프랑스·3.4배) 등 순으로 차이가 컸다.

수입산 가운데 100ml당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은 프랑스가 원산지인 '이드록시다즈'로 2200원이었다.

유통채널별 가격을 보면 국내 및 외국산 모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소매판매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베네디토는 백화점 가격이 100ml당 평균 1000원으로 온라인소매판매 399원의 2.5배였다. 페리에에는 2.1배였다.

국내 탄산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간 가격 차이가 컸다.

온라인에서 143원인 '디아팡'은 편의점에서 약 4배인 575원에 판매 중이다. 트레비도 온라인(183원)보다 드럭스토어(554원) 판매가격이 3배가량 높았다.

전반적인 가격을 비교해보면 국내산은 100ml당 온라인 203원, 오프라인 326원으로 전체평균이 265원이다. 수입산은 온라인 593원, 오프라인 903원으로 전체평균이 국내산보다 3배 정도인 748원이다.

원재료 및 함량, 영양성분, 맛 측면에서는 제품들 사이에 특별히 차별적인 요소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여성소비자연합은 설명했다.

김순복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탄산수를 구매할 때 소액 촉진이나 다이어트 등



에 대한 효능에 기대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탄산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목욕탕·워터파크 비데폴 수압 마사지

“엉덩이 조심하세요”

항문 부상·직장 파열 등

피해 사례 속출 주의 필요

목욕탕이나 워터파크에 있는 비데폴 같은 수압마사지 시설에서 나오는 강한 물줄기에 항문 등을 다친 사례가 속출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이 접수한 수압마사지 시설 관련 부상 사례는 총 9건이다. 9건 가운데 항문이나 생식기 부상, 직장 파열 등 중대 사고가 6건이었다.

항문이 외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항문압보다 높은 수압에 노출되면 장 내로 물이 흘러들어 갈 수 있다. 연령대별 항문 압은 어린이 0.046kg/cm², 20대 0.14kg/cm², 60세 이상 0.1kg/cm² 등이다.

순간 유입된 물 압력이 0.29kg/cm²를 초과하면 장 파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나 10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보다 항문압이 낮고 순간 대응력도 떨어져 사고에 취약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소비자원이 20개 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32개 수압마사지 시설을 조사한 결과 분출되는 물 압력이 장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압(0.29kg/cm²)보다 높은 곳이 절반인 16 곳이었다. 이 가운데 수압이 가장 높은 시설의 수압은 장 파열 가능 수압보다 최대 5.5배 높은 1.62kg/cm²에 달했다.

또 12개 시설의 수압은 장 파열 가능 수압보다는 낮지만 직장 내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수압(0.14kg/cm²)보다 높았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수압마사지 긴급정지 장치를 설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수압으로 항문 등을 다칠 수 있다는 주의 표시를 붙인 곳도 2곳에 불과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사고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설 작동을 멈추는 긴급정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수압마사지 시설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안전기준도 없어 사고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긴급정지 장치 설치와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수압마사지 시설 안전기준 마련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적정 안전 수압을 유지해달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 상시 재평가 시스템 구축

식약처, 5명 이상이 피해 신고하면 조사... 벌금 부과도

정부가 이른바 '백수오 파동'의 후속 대책으로 그동안은 한번 기능성을 평가받으면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등 유행이라고 판단되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체에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을 만들어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5년엔 한 번씩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다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기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다시 평가받지 않았었다. 식약처는 이처럼 5년에 한 번씩 재평가

하고 필요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재평가하는 투트랙의 재평가 체계를 통해 소비자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계획이다. 그간 4단계로 구분됐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체계는 1단계로 축소하고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해 기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경우), 생리활성기능 1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줌), 2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중 하나를 부여했다. 이 중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 1등급, 2등급을 통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쉽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없앨 방침이다.

2017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소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재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미술부문 최고상 | 2006년 제51회-임술기(비야중3), 김민희(광주여고2) | 2007년 제52회-조은진(전남중3), 김해주(광주여고2) | 2008년 제53회-김재현(일곡초2), 김민정(광주중앙초4), 신재민(광주중앙초5), 정소리(전남중3), 이은주(전남여고3) | 2009년 제54회-이호현(동림초2), 김세민(광주교대부설초3), 정은재(신암초5), 이주희(광주경신중2), 진재희(침단고2) | 2010년 제55회-김준서(마지초1), 임하리(순천남초2), 박지현(광주송원초3), 이세림(광주중앙초6), 이기영(일곡중2), 박상아(광양제철중3), 노하은(여수여고2), 김다영(호남삼육고2) | 2011년 제56회-최원정(진남초1), 박가은(유덕초3), 이시욱(매곡초5), 전혜주(광주북성중2), 범지선(수피아 여고2), 조아리(대성여고3) | 2012년 제57회-이예원(고실초1), 조은송(광주송원초3), 김민정(용두초5), 김민혁(정덕중1), 정윤미(살레시오여중3), 이인혜(광주여고1) | 2013년 제58회-성세경(금당초1), 권유선(광주계림초4), 정재윤(광주송원초6), 강민지(광주동성여중3), 정지윤(광주여고1), 박혜령(조대여고2) | 2014년 제59회-정윤실(광주송원초1), 김예린(광주계림초4), 정다연(운남초5), 정다연(대성여중2), 문지윤(정덕중3), 윤화인(전남여고2), 박혜령(조대여고3) | 2015년 제60회-김윤서(광주송원초2), 정요훈(정덕초3), 김민지(서광초5), 천미성(용두중3), 오승희(삼무고2), 박신영(광주여고2)

작문부문 최고상 | 2006년 제51회-김성희(광주팔곡초5), 박주연(동아여중2), 김지수(인현청량중3) | 2007년 제52회-조혜민(광주송원초2), 김하연(동아여중3), 정다윤(풍암고2) | 2008년 제53회-김민영(유안초4), 이주희(동아여중3), 한유나(대광여고2), 신미희(보문고3) | 2009년 제54회-최지윤(광주송원초1), 송신형(송의중1), 백재열(인양여고3) | 2010년 제55회-박동현(두암초4), 조은(광양동초4), 황현웅(광주송원초5), 김소연(동아여중2) | 2011년 제56회, 차진우(광주송원초4), 김유진(광주송원초6), 김민빈(경신여고3), 김민정(경신여고3) | 2012년 제57회-김남현(광주송원초4), 심현지(문정여고3), 차나연(삼일여고3) | 2013년 제58회-전유민(유덕초4), 손상원(광주삼육초5), 정소영(대성여고3) | 2014년 제59회, 이상재(광주송원초4), 박민우(광주송원초6), 류강희(여도중3), 선혜경(금호중앙여고3) | 2015년 제60회-김지우(광주송원초5), 정지윤(동아여중3), 공해지(광주장덕고3) *수상당시 학교명과 학년을 표기하였습니다.